

호남권 외국인 취업자 7만여명 ‘역대 최대’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조사

엔데믹 여파 1년 새 1만2000명 ↑
전국 92만명, 전년비 8만명 늘어
베트남·중국 등 비전문취업 증가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 역시 1년 새 외국인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6만8000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5월 5만6000명에서 1만2000명(21.4%)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입국에 제한이 있었던 시기를 벗어나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도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000명(9.9%) 증가했는데,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상주인구는 베트남(3만2000명)과 중국(5000명) 등에서는 증가했으며 한국계 중국(-7000명) 등에서는 줄어 들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6만명), 유학생(2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고 방문취업(-1만명)과 결혼이민(-3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외국인 취업자 2명 중 1명이 30대 이하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외국인 취업자가 21만4000명으

로 23.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17만3000명)보다 4만1000명(2.7%) 증가했다. 30~39세 취업자는 30만8000명으로 1년 전(27만8000명)보다 3만명(0.3%) 늘어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 증가했는데,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64.2%가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근로자가 44만2000명으로 전체의 50.6%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으로 35.8%를 차지했다.

이어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절반 이상(57.5%)이 구직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중이 21.9%, 한국어를 잘 못해서라고 답한 비중이 15.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들이 크게 증가하며 상주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비전문 취업이 6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스키웨어로 겨울스포츠 즐기세요”

광주신세계는 전국 스키장이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키웨어를 선보인다. 신관 지하1층에 입점한 ‘라시엘로(LACIELO)’는 1995년 한국에 처음 선보인 이탈리아 라이선스 스키보드웨어 브랜드다. 화려한 색상의 패턴 디자인과 수분의 유입을 막는 고급 방수 원단,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인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남녀공용 스키보드용 고글과 바닥 부분에 소재를 덧대어 미끄럼 방지기능을 높인 장갑 등 스키용품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소상공인 50% “내년 경영환경 더 어렵다”

중기중앙회, 경영실태 조사 원자재 상승 등 경영부담 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1~24일 생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생활 밀접업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 (42.4%)하거나 ‘악화’ (50.1%)할 것이라 답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 33.8%,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 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 1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재무환경은 올해 초부터 지난 달까지 월평균 매출액 4610만원, 영업이익 40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타격을 크게 입은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은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66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은 114만원, ‘도소매업’ 108만원 순이다.

‘향후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비율은 5.2%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82.9%)보다 낮았지만, 이는 취업 곤란, 노후대비 등을 이유로 한 생계형 창업이 8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생계형 창업은 ‘도소매업’ 97.0%로 가장 높고 ‘제조업’ 91.7%, ‘숙박·음식점업’ 81%로 중소상인 대부분은 경영부담에도 폐업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72.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12.7%, ‘과밀경쟁 구조개선, 폐업 및 재기 지원’ 10.4%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 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하이트진로, 내년 소주 출고가 10.6% 인하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32원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 360ml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가격인하는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뉴스

현대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신규 채용

고졸 이상… 연령·성별 제한 없어 국내공장·남양연구소 등 3개 부문

현대차가 올해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에 이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기술인재 확보에 나선다.

18일 현대차는 차량 전동화 등 미래 산업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모빌리티 기술인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국내생산공장(울산, 아산, 전주)의 완성차 생산, 남양연구소의

R&D 기술, 디자인 모델러 등 총 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의 제한은 없다. 모집 부문별 세부요건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ttps://talent.hyund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이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말이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초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1차 면

접,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최종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4월 말에서 5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생산공장 완성차 생산 부문의 최종 합격자는 2개 차수로 나뉘어 입사교육을 받는다. 1차수는 5월 말, 2차수는 6월 말부터 진행되는 입사교육을 거치며 차수별로 6월 말과 7월 말에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남양연구소 디자인 모델러 부문은 실기 시험, 인턴실습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R&D 기술, 디자인 모델러 부문의 최종 합격자는 6월 중 입사교육을 받게 되며 7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챌린지’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2주간 평소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응원하는 2023 눈꽃 동행축제 캠페인 ‘온기 나눔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챌린지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사활동,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이웃에 온기를 나누는 주변의 가게를 이용하고 인증사진과 해당 나눔 내용을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필수해시태

그(#온기나눔챌린지, #동행온기나눔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리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챌린지에 참여하면 ‘LG스탠바이미’, ‘로만손 시계’, ‘제이에스티나 제품’, ‘LG생활건강 화장품’ 등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23 눈꽃 동행축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기획전, 지역행사, 바자회 및 각종 이벤트 등의 상세한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ia.org 입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KJ카드, 여행박사 연계 특별할인 이벤트

광주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박사와 연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오는 2024년 3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은행 KJ카드로 여행박사 100만원 이상 결제 시 7% 즉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며, 해외여행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에 한해 선착순 285명에게 최대 7만원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광주 와뱅크’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행박사 여행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이벤트 대상은 KJ카드 개인회원에 한하며 기업카드, 기프트카드, 지역화폐는 제외되며, 1인 1회에 한해 최대 7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용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도록 KJ카드 개인신용카드 회원에게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와뱅크(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유동구카드사업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